



# 건강 상담실

**문 :** 약을 먹어도 요충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요?

**답 :** 요충은 채소나 민물고기 또는 육류를 먹고 감염되는 기생충과는 그 생활사가 다릅니다. 요충은 밤에 잠을 잘때 항문 주위에 나와 알을 낳고 그 알이 잠옷이나 요, 이불, 또는 그외 가재도구에 묻었다가 손이나 음식물에 오염되어 입으로 들어가면 감염되며 충란이 감염된 후 성충이 되기까지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요충은 유치원 및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서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며 신경질, 학력저하, 주의력 산만 등 영향을 주게되어 집단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권장할만한 치료법은 온 식구가 동시에 약을 복용하되 1주내지 10일 간격으로 4~5회 계속하고 잠옷 등 내의도 온 식구가 한꺼번에 세탁하며 이불이나 요는 햇볕에 자주 일광소독을 하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청결히 청소하여야 합니다. 또 식사전 손을 깨끗이 닦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요충치료약은 특별히 선택되어 있지 않으며 회충증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하고 나면 괜찮다가 얼마간 날짜가 지나면 다시 항문 가려움증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약효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감염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 간염접종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간염은 A형, B형, 그리고 A형도 B형도 아닌 NANB형 3가지로 크게 분류되며 이 중에서 B형 간염이 가장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약 10% 정도 감염되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편이며 이와 비례하여 간염접종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B형간염은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어 면역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접종 전에 B형간염 검사를 받고 항원과 항체가 모두 음성일 때만 접종을 하게 됩니다.

항원양성은 B형간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이미 침입한 상태거나 간염을 앓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항체양성은 예방접종 또는 간염의 치유에 의하여 체내에 B형간염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않습니다.

간염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루 속히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조사연구부 자료제공)